

쉽게 가는 정치학 **최승호** 강의계획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답안작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습하여
정치학에 대한 ‘형식(답안)’과 ‘실질(내용)’을 다질 수 있는
최승호 강사의 “리마인드 정치학, 기출문제반”

핵심 미션 : 최근 기출 30문제의 해설을 통한 핵심 내용정리

■ ■ 담 당 최 승 호

■ ■ 강의일정 2018년 12/28(금) ~ 1/10(목), 총 12회

■ ■ 시 간 [오후 실강반] 2시 00분 ~ 5시 40분

■ ■ 강의교재 ▶ 쉽게 가는 정치학 기출문제자료집(학원교재, 실비제공)

- ■ 강의대상
1. 1년 차 입문 수험생으로, 정치학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종합반 코스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비순환이나 1순환을 통한 내용정리가 제대로 되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3. 종합반을 통해 어느 정도의 내용정리가 되었으나 답안작성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4. 2년 차 이상 수험생으로, 정치학에의 상당한 시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 ■ 강의특징
1. 최근 5년간 5급공채/입법고시 기출문제의 패턴분석을 통해 핵심내용 강약잡기(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해결)
 2. 기출문제 풀이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 정리 교재 배포
 3. 내용정리와 답안작성을 연계학습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수업을 통해서 제시(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해결)
 4. 답안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을 배양하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료 배포

- ■ 공부방법
합격수기
1. 2018년 일반행정 합격 A(1년차 합격)

2순환은 PSAT이 주는 압박이 강해지는 시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의 PSAT 상황에 따라서 준비 시간을 조절하되, 가능하다면 2차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적정히 확보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순환 역시 모든 과목을 수강하고, 내용 정리 및 기출문제 반목을 동일하게 목표로 잡았습니다.

2순환은 기간이 가장 짧지만,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1년차 수준에서 내용 정리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순환이 모든 과목에 있어서 내용 이해도와 숙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 행정법 역시 기출문제 정리를 보완하면서, 혹은 수업을 들으면서, 예비순환 때는 감을 잘 잡지 못했던 부분들을 '전 순환보다 더 잘 이해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2일에 1번씩 치는 모의고사 및 수업 시간에서의 문제풀이를 통해 PSAT기간 이전의 2차 준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2순환에도 행정학과 정치학의 답안작성반을 병행했습니다. 행정학과 정치학 기간은 PSAT 기간과 가까워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순환 때 봤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보고, '답안 현출'에 보다 익숙해졌다는 점에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1순환 때의 답안작성반보다 작성시간이 단축되었고, 여전히 어려웠지만 보다 편하게 글 구성과 목차화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2018년 일반행정 합격 B(1년차 합격)

2순환은 많은 수험생이 등한시하는 시즌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실력 상승을 경험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답안작성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답안의 숙련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내용의 반복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과목의 전체적인 조감도가 어렵듯이나마 그려져야 합니다.

2차 논문 과목(행정학과 정치학)은 이 시기에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3순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적으로 이때 서브 노트를 만들어두어서 3순환 때 정말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2순환에도 각 과목 시즌에는 해당 과목만을 공부했습니다.

정치학이 묵직한 스트레이트 펀치로 KO를 노리는 과목이라면, 행정학은 가벼운 잭으로 승부를 거는 과목입니다. 즉, 정치학에 반해 행정학은 '빈 틈 없는'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이곳저곳 건들면서 공백이 없는 글쓰기를 해야 하기에, 최승호 선생님의 체제론적 접근방법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목차를 자세히 잡을수록, 부제는 달아줄수록 좋은 과목입니다. 목차만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훈련을 많이 해주세요. 목차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글쓰기를 하시면, 목차에서도 정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많은 답안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주제
■ 제 1 회	12/28(금)	1. <u>최근 5년 간(2014년-2018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전체 문제(30문제)를 진도별로 풀이</u> 하는 방식의 수업입니다.
■ 제 2 회	12/29(토)	
■ 제 3 회	12/31(월)	2. <u>이틀에 한 번 복습 형식의 답안작성과 채점</u> 이 진행됩니다.
■ 제 4 회	1/1(화)	3. <u>강의 첫날은 정치학 전체 내용에 대한 주소잡기(흐름과 핵심 단어 점검)가</u> 진행됩니다.
■ 제 5 회	1/2(수)	
■ 제 6 회	1/3(목)	
■ 제 7 회	1/4(금)	
■ 제 8 회	1/5(토)	
■ 제 9 회	1/7(월)	
■ 제 10 회	1/8(화)	
■ 제 11 회	1/9(수)	
■ 제 12 회	1/10(목)	

※ 수업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